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특성 :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을 중심으로*

김 은 정 권 정 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최근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대인관계적 접근에 기초하여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 부적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성인기 애착관계형성과 우울증상간의 전반적인 관계 및 이들 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태도 및 부정적인 대인관계 스키마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22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애착관계에서 경험하는 높은 불안 수준과 낮은 의존 가능성은 역기능적 태도척도의 하위 요인인 성취지향성 요인과 타인 의존성 요인을 거쳐 우울증상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관계 형성과 우울증상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네 가지 애착관계 유형을 구분하여 우울증상의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대인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집단이 우울증상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대인관계적 접근에서 애착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울증의 대인관계 이론 확립에 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우울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됨에 따라(eg. Gotlib & Lee, 1989) 우울증의 대인관계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인관계과정 이 우울증을 증진시키고 지속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주

장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여러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그러나, 우울한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하고 개별적인 사회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연구결과들을 일관적으로 통합하기가 어려우며, 우울증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사후연수과정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우울증과 대인관계

단극성 우울증의 유발 및 지속과 관련된 특징적인 대인관계 과정을 밝히려는 연구들에 의하면(eg. Coyne, 1976),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관계상 특징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부족, 사회적 지지의 부족, 부족한 사회적 기술 그리고 대인관계 내에서의 특징적인 행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한 사람들은 양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감을 호소하며,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즐겁지가 않다고 보고하였다(Gotlib, 1992).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우울증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울증과 손상된 부모-자녀 관계, 우울증과 부부간의 갈등 및 불화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고, 우울한 사람들은 높은 빈도의 대인관계 갈등 사건을 보고한다고 하였다(Barnett & Gotlib, 1988; Blatt & Zuroff, 1992; Downey & Coyne, 1990; Hammen, 1991). 또한 최근에는 의존성 혹은 사회적 성향(sociotropy)과 같은 우울증에 취약한 성격특성과 관련하여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연구하고 있다(eg. Gotlib & Hammen, 1992).

Burns, Sayers 및 Moras(1994)는 우울증상의 수준과 대인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는데, 만성적인 우울집단의 경우가 일시적인 우울증상을 경험한 집단보다 대인관계 갈등을 더 많이 유발시키고 만족도를 저하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임상적인 진단을 받을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중등도 이하의 약한 우울증상을 만성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집단도 우울증진단을 받은 집단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대인관계 적응 행동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기능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tlib, Lewinsohn, & Seeley, 1996).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대인관계적 접근

우울한 사람들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측면은 인지적인 역기능과 함께 우울증의 원인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Barnett & Gotlib, 1988; for review Robert, Gotlib & Kassel, 1996, Siegal & Alloy, 1990), 최근에는 우울증의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인지적 접근과 대인관계적인 접근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Gotlib & Hammen, 1992; Safran, 1990). 이 접근은 역기능적인 인지 발달의 기원으로서 애착관계의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애착관계형성에 대한 탐색은 대인관계 패턴이 인지적인 취약성으로 내면화되고 발달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Whisman & McGarvey, 1995). 따라서 애착이론은 우울증에 관한 인지적 접근과 대인관계적 접근을 통합하고 대인관계상에서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4). 대표적으로 Gotlib과 Hammen(1992)의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대인관계적 접근 모델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좋지 않은 부모-자녀 간의 경험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표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정적인 스키마와 역기능적인 부모양육 경험은 대인관계 행동과 기술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우울한 사람들이 관계형성을 어려워하는 점이 바로 이러한 측면과 관련이 있어,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스키마를 가진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와 타인의 사랑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확신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우울증의 인지적 스키마의 개념도 기존의 개인에 대한 스키마에서 벗어나 대인관계 맥락에서 획득하게 되는 대인관계적 스키마로 옮겨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Safran(1990)에 의하면 대인관계적 스키마란 애착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 자신과 타인간의 관계에 대한 일반화된 표상으로서 대인관계 경험을 해석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Safran(1990)의

대인관계적 셰마라는 개념은 인지적 관점과 대인관계적 관점을 통합하는 구인으로서(Safran, 1990) Bowlby (1980)의 내적인 활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 자신-타인에 대한 표상)을 인지적인 접근으로 정교화한 것이다. 부적응적인 셰마는 자신의 셰마를 확신시키는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적인 행동을 산출할 수 있다.

우울증과 애착관계 형성

애착관계에 기초한 경험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 관계 형성에 대해 보고하게 했을 때,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았다거나 과도하게 보호를 받았다거나, 적대적이고 학대적인 행동을 더 많이 경험했다고 하였다. 또한 애착관계를 생애 발달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본 단기 횡단 연구들은 개인의 성인기 애착관계 유형이 유아기 때의 특징과 대략적으로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Hazan & Shaver, 1987; Milkulincer, Florian, & Weller, 1993). 한편,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과거의 초기 대인관계 혹은 중요한 타인(부모 혹은 양육자)과의 관계 형성의 질에 대한 자기보고에 우울증적인 편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의 대인관계 기능 수준에 의해 과도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Bartholomew, 1994). 반면, 최근 연구에서는 전체 연구대상자들의 약 60%-70%가 애착 유형에 있어서 일관적인 양상을 보여 애착 유형의 안정성에 대한 경험적인 결과들을 보고하였다(Kirkpatrick & Hazan, 1994 : Scharfe & Bartholomew, 1994).

지금까지 애착관계 연구들은 주로 성인기의 애착관계형성과 관련된 것들이며(Collins & Read, 1990 ; Kobak & Hazen, 1991), 애착관계의 불안정성이 성인기의 심리적 불편감이나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가 않다. 예를 들어 불안정한 성인기 애착관계형성은 우울증 및 정서적인 불편감과 관련이 있으며(Kobak & Hazen, 1991),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해 줄 수도 있다(Hammen, Burge, Daley,

Davila, Paley, & Rudolph, 1995; Milkulincer et al., 1993). 또한 우울한 사람들은 애착관계 형성에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회피하는(avoidant-fearful) 성향을 보이며(Carnelley et al., 1994), 불안하고 양가적인 감정을 보였다(Roberts et al., 1996). 그리고 성격장애 외래 환자, 만성적인 우울증환자 및 불안장애 외래환자들은 애착관계 대상을 상실할까봐 두려워하는 정도가 높았다(West, Rose, & Sheldon, 1993).

Hazan과 Shaver(1987)의 유형구분에 의하면, 안정적인 유형을 가진 성인들은 친밀한 관계 형성을 편안하게 느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회피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렵고 친밀한 상태에 대해 불편하게 느낀다. 또한 불안하고 양가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거부에 대한 불안이 높고 자신의 기대와는 상반되게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애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대인관계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고 자신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만족감이 다를 수 있다(Carnelley et al., 1994).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Hazen과 Shaver(1987)의 유형론을 수정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차원으로 나누어 네 개의 범주로 구성된 애착유형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되는 국내 문헌 중 장휘숙(1997)의 연구에서도 4 범주 모형이 성인기 애착양상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보았다. 애착관계형성에 있어서 안정적인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며,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preoccupied)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사람들로서 의존욕구가 강하고 중요한 타인의 인정을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회피적인 사람들은 관계형성을 무시하거나(dismissing)하거나 두려워하는(fearful) 범주 중 하나에 속하게 되는데, 전자는 친밀한 관계형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친밀성을 바라는 동시에 상처를 받을까봐 그리

고 실망을 할까봐 두려워서 대인관계를 회피하는 사람들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Carnelley 등(1994)의 연구 결과에서는 경미한 수준의 우울증상을 보이는 여자들은 두려워서 회피하는 유형이나 몰입하는 유형(preoccupied)이 많았고 회복된 우울환자 집단은 두려워서 회피하는 유형과 특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애착유형이 우울한 사람들의 관계형성 기능을 강력하게 예측해 주며 구체적으로 회피적이거나 몰입하는 유형의 여자들은 결혼생활의 적응도가 낮았고 배우자의 지지가 적었다고 보고하였으며, 회피적인 유형의 사람들은 건설적인 갈등해결 양식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여주었다.

Bartholomew(1990)는 서로 다른 애착유형은 각각 서로 다른 정신병리와 관련성이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연구한 결과, 두려워하는 유형은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으며, 무시하는 유형은 반사회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전의 Blatt, Quinlan, Chevron, McDonald과 Zuroff(1982)등의 주장과 일치되는 것으로써 과거 경험에 기초한 대인관계에 관한 인지가 우울증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아동기의 경험이 의존적인 성격성향과 자기 비판적인 성향을 각각 발달시켜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예로서 의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애정과 지지 그리고 자기 확신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사람들로써, 이전에 제시한 애착 유형에 의하면 몰입하는 유형과 유사하며, 반면에 자기 비판적인 성격 유형은 성취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나타내며 두려워하는 애착 유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애착관계 형성과 우울증상간의 관계는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졌으나, 아직까지 불안정한 애착관계 형성과 심리적인 불편감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기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Cummings와 Cicchetti(1990)는 안정적인 애착관계형성상의 개인차는 인지적인 매개요인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을 맺는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Whisman과 McGarvey(1995)는 애착관계와 우울증상

간의 매개요인으로서 역기능적인 태도(dysfunctional attitude)를 강조하였다. Collins와 Read(1990)는 불안정한 애착관계형성이 낮은 자긍심으로 이끌 수 있어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oberts 등(1996)은 매개요인으로서 역기능적인 태도와 낮은 자존감을 가정한 결과, 불안정한 애착관계형성은 역기능적인 태도와 낮은 자긍심을 통해 간접적으로 8주 후의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Whisman과 Kwon(1992)의 연구에서도 애착경험은 역기능적인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들 두 요인은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의 수준에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최근 우울증에 대한 통합적인 모델중의 하나인 인지적-대인관계적 접근(Gotlib & Hammen, 1992)에 기초하여 우울증상과 관련된 대인관계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대인관계적 접근은 기존의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접근이 지니는 여러가지 제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지적 왜마의 기원을 밝히고 인지적 왜마의 내용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인관계적 사회적인 맥락의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우울증상과 관련된 다양한 역기능적 대인관계 행동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첫째, 우울증상과 애착관계 형성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이들 관계에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역기능적인 태도와 대인관계 왜마의 영향을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변인의 확인은 부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이 우울증상을 유발하고 이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주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구체적으로 애착유형에 의해 집단을 구분하고 우울증상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우울증상과 애착 유형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우울증상의 수준과 주요 우울증에 대한 진단적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이들의 대인관계상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우울증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하위 집단을 포함하고 있는 정신병리 집단으로서 이들 하위 집단의 특성에 따라 대인관계상 특성 및 애착관계형성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우울증의 하위 집단의 확인과 적절한 치료적인 접근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Y대와 K대의 남녀 대학생 221명이었고 이들에게 강의시간에 '일상생활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설문지에는 Beck의 우울증 척도(BDI), 개정된 애착관계척도(Revised Attachment Scale: Collins & Read, 1990), 자기보고형 애착유형 척도(Self-report attachment style: Bartholomew & Horowitz, 1991), 역기능적 태도 척도(Dysfunctional Attitude Scale : Weissman & Beck, 1978), 대인관계 쉼마 척도(Interpersonal Schema Questionnaire : Safran, Hill & Ford, 1990) 및 DSM-IV의 주요 우울증 장애 진단 기준에 대한 평가질문지 등이 포함되었다.

측정 도구

1) 우울증상의 평가

a. Beck Depression Inventory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국판 검사지가 각 문항에 포함된 4개의 진술문들이 증상의 심도상 변화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새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관성의 신뢰도는 $\alpha = .8596$ 으로 나타났다.

b. DSM-IV의 주요 우울증 장애 진단 평가 : 임상적 수준의 우울증상 집단을 확인하고자 DSM-IV의 주요 우울증 장애에 포함된 9개의 진단 기준에 대한 자기평가 척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9개의 문항에 대해 각각 과거와 현재를 나누어 예 혹은 아니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2) 대인관계에 대한 인지적 평가

a. 애착관계의 질에 대한 평가 : Collins와 Read(1990)의 개정된 성인 애착관계형성 척도(RAAS: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를 통해 애착관계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았다. 이 척도에 포함된 18개의 대인관계 관련 문항은 요인분석에 의해 의존가능성, 친밀성 그리고 불안이라는 세 개의 하위척도로 나뉘어진다 (Collins & Read, 1990). 의존가능성 척도는 개인이 타인에게 의존할 수 있는 정도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이 곁에 있어주는 정도를 말하며, 불안척도는 버림받을까봐 사랑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친밀성척도는 개인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평가하는데, 안정된 애착관계형성은 친밀성과 의존가능성 척도에서 높고 불안척도에서 낮은 경우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척도, 친밀성 척도 그리고 의존가능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의 정도가 각각 $\alpha = .66$, $\alpha = .59$, $\alpha = .71$ 로 각각 나타났다.

b. 애착관계의 유형에 대한 평가 : 자기보고형 애착관계 유형척도(Self-report attachment style : Bartholomew & Horowitz, 1991)는 서로 다른 관계형성의 특징을 기술하는 4가지 항목 중 자신에게 가장 잘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항목 한가지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4가지 유형은 각각 안정된 유형, 무시하는 유형, 몰입하는 유형 그리고 두려워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안정된 유형은 친밀한 관계형성에 대해 안정적이며, 무시하는 유형은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의 필요성을 평가절하하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려는 유형이다. 몰입하는 유형은 친밀한 대인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높고 이에 높은 가치를 두는 유형으로서 상대방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인정에 민감하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는 유형은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까봐 친밀한 관계형성을 회피하는 유형이다.

c. 대인관계 쉼마의 평가 : Safran, Hill 과 Ford(1990)의 대인관계 쉼마 질문지는(Interpersonal Schema Questionnaire : ISQ)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에게 중요한 세 명의 타인(부, 모 그리고 친구)이 자신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반응

을 평가함으로써 각 타인에 대해 개인이 갖는 인지적 왜곡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척도는 Kiesler(1983)의 Interpersonal Circle에 기초한 것으로서 대인관계 행동을 통제성(주도적-복종적)과 친밀성(우호적-적대적)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각 차원에서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차원 중 예비연구를 통해 신뢰도가 확인된 친밀성 척도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의 정도는 $\alpha = .886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성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방으로부터 친밀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기대함을 의미한다.

3) 부정응적인 인지의 평가 : 역기능적 태도 척도(DAS: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Weissman & Beck, 1978)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왜곡을 측정하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전적으로 동의한다(1)~ 전적으로 반대한다(7)까지 7점 척도에 평정하게 되어 있어 점수의 범위는 40-2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왜곡을 더 많이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석만(1994)의 요인분석 결과와 거의 유사하여 이에 기초하여 성취지향성 요인과 타인의 의존성 요인으로 구분하고 두 개의 하위 척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 일관성의 정도가 성취지향성 요인은 $\alpha = .79$, 타인의존성 요인은 $\alpha = .84$ 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1. BDI점수 분포 및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연구 대상자들은 남녀 대학생 221명으로서 이들의 BDI 점수 분포를 살펴 보면, 0점에서 9점사이(비우울증상 집단)가 120명, 10점에서 15점 사이(경미한 우울증상 집단)가 57명 그리고 16점이상(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상집단)이 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을 한 결과, BDI 점수 상에서 여학생이 평균 10.60으로 남학생 8.33에 비해 의미있게 높았다, $F(1,220)=6.69, p<.05$. 그리고 역기능적 태도의 하위척도인 타인의존성 요인에서도 여자가 42.15로서 남자 39.2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F(1,220)=5.23, p<.05$, 대인관계 왜곡(대인관계상에서 친밀한 반응을 기대하는 정도) 점수에서는 여자가 16.91로서 남자 19.72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F(1,220)=7.06, p<.01$. 이외에 애착관계 형성상 특성(친밀성, 의존가능성, 불안)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BDI 점수와 DSM-IV 진단기준 충족여부에 따른 세 집단 차이검증

BDI점수가 16점 이상과 미만인 집단을 각각 구분한 뒤 16점 이상의 집단을 다시 DSM-IV 진단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1). 진단 기준은 주요 우울증상에 진단 총 9개 기준 중에서 우울한 기분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흥미저하 중 어느 한가지에 표시를 하고 총 표시한 증상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이다. 결과적으로 임상적 수준의 우울증상 집단(25명), 비임상적 우울증상 집단(14명) 그리고 비우울증상집단(177명)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수준의 우울증상 집단과 비임상적 수준의 우울증상 집단간 비교를 통해, 진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울증상을 중등도 이상 보이는 집단의 대인관계 특성 및 기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임상적 수준의 우울 집단(집단1)과 비임상적 우울증상 집단(집단2)은 성취지향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 BDI 점수뿐만 아니라 역기능적인 태도, 애착관계 형성의 질 및 긍정적인 대인관계 행동의 기대수준 상에서도 전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두 집단은 각각 비우울증상 집단(집단3)과는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집단1과 집단2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은 애착관계 형성의 질

표 1. BDI 점수와 DSM-IV 진단기준 충족여부에 따른 세 집단 차이검증

	집단 1(N=25) :BDI 16점이상 진단기준 충족	집단 2(N=14) :BDI 16점 이상 진단기준 비충족	집단 3(N=177) :BDI 16점 미만	F	집단비교
1. BDI	20.40(4.24)	19.50(3.67)	7.25(4.26)	147.50***	1/3, 2/3
2. DAS	156.44(24.74)	153.85(24.00)	37.59(22.90)	9.36***	1/3
3. AUT	51.80(10.77)	53.21(13.60)	45.66(10.43)	6.27**	1/2, 2/3
4. DEP	46.80(8.21)	46.21(8.56)	39.45(9.29)	9.81***	1/3, 2/3
5. Close	18.64(3.94)	17.79(4.70)	20.71(3.62)	6.73***	1/3, 2/3
6. Dependence	15.56(4.97)	15.57(3.34)	18.31(3.80)	7.81***	1/3, 2/3
7. Anxious	16.76(4.60)	18.50(4.47)	14.31(3.51)	11.92***	1/3, 2/3
8. TAFF	14.22(7.18)	17.50(9.54)	18.79(7.51)	3.86*	1/3

BDI: 우울증상수준 DAS: 역기능태도 DAS-AUT: 성취지향성 DAS-DEP:타인의존성
 Close: 애착-친밀성 Dependence: 애착-의존가능성 Anxious: 애착-불안성
 TAFF: 대인관계해마-친밀성총점

*** $p < .001$, ** $p < .01$, * $p < .05$

이나 대인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해마 및 역기능적인 태도에 있어서 비임상적 우울증상집단도 임상적 우울증상 집단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부적응적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애착유형에 따른 집단비교

자기 보고에 의한 4가지 애착유형(안정형, 무시형, 몰입형, 두려움형)에 의해 집단 구분을 한 다음, 이들 네 집단간의 각 척도상의 점수 비교를 위해 일원변량분석과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2). 우울증상의 수준에 있어서는 몰입형 집단이 평균 11.88로 경미한 우울증상 수준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안정형 집단이 7.80으로 가장 낮아 이들 두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5$. 각 네 집단에 대해 Hazen 과 Shaver(1987)의 3가지 하위 척도간의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안정형 집단은 친밀성과 의존가능성 점수는 높은 반면 불안 척도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고 무시형 집단은 친밀성 점수를 포함한 세 개의 척도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몰입형 집단은 세 개 모든 척도상의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마지막으로 두려움

집단은 친밀성 점수와 의존가능성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지 경향성에 근거한 비교이지만, 전반적으로 네 집단의 특성을 타당성 있게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애착관계형성의 질에 있어서는 친밀성, 의존가능성 및 불안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구체적으로 친밀성의 수준에서는 안정형 집단과 몰입형 두 집단이 유사한 점수를 보였고 이들 두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각각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의존가능성에 있어서는 안정형 집단은 나머지 세 집단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수준에 있어서는 몰입형 집단이 평균 15.86으로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역기능적 태도 총점은 안정형 집단이 135.79로 가장 낮고 몰입형과 두려움형 집단이 가장 높았으나, 네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인 유의도에 미치지 못했다, $F(3,218)=2.59$, $p=.054$. 성취지향성 하위척도에서는 무시형 집단과 몰입집단이 각각 안정형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타인 의존성 척도에서는 몰입형 집단이 43.40으로 가장 높았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이고 애정

표 2. 4가지 애착유형집단간의 비교

	1.안정형 (87명)	2.무시형 (44명)	3.몰입형 (62명)	4.두려움형 (28명)	F	집단비교
1. BDI	7.80(5.69)	9.20(6.60)	11.88(6.41)	10.96(7.41)	5.38***	1/3
2. DAS	135.79(23.45)	143.30(23.58)	145.73(25.28)	145.70(24.47)	2.59	
3. AUT	43.63(11.15)	49.75(10.92)	48.98(10.64)	49.86(10.26)	5.06**	1/2,1/3
4. DEP	40.03(9.31)	38.86(8.90)	43.40(9.74)	41.00(9.96)	2.38	
5. Close	22.01(3.08)	18.59(3.09)	20.63(3.60)	16.82(4.06)	21.39***	1/2,1/4,2/3,3/4
6. Dependence	19.52(3.82)	16.86(3.39)	17.15(3.90)	15.41(4.08)	11.00***	1/2,1/3,1/4
7. Anxious	12.98(3.29)	14.57(3.65)	17.23(3.86)	15.86(2.93)	18.79***	1/2,1/3,1/4
8. TAFF	20.01(7.29)	15.68(7.53)	17.22(7.52)	18.65(8.94)	3.50*	1/2
9. PADEP	2.37(2.22)	3.93(2.82)	3.77(2.60)	3.93(2.45)	6.38***	1/2,1/3,1/4
10.PRDEP	1.91(2.18)	2.50(2.34)	2.95(2.31)	2.68(2.14)	2.82**	1/3

BDI: 우울증상수준 DAS: 역기능태도 AUT: 역기능적 태도-성취지향성 DEP: 역기능적 태도-타인의존성
Close: 애착-친밀성 Dependence: 애착-의존가능성 Anxious: 애착-불안성 TAFF: 대인관계셰마-친밀성총점
PRDEP: 현재 우울증 진단기준 증상 수 PADEP: 과거 우울증 진단기준 증상 수

*** $p < .001$, ** $p < .01$, * $p < .05$

적인 반응기대에서는 총점 상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218)=3.59$, $p < .05$. 과거 우울 병력에 대해 DSM-IV 주요 우울증 장애 진단기준의 증상의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안정형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p < .05$, 세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우울 상태에 대해 DSM-IV의 주요 우울증 진단기준 증상의 수를 비교해 본 결과, 안정형 집단과 몰입형 두 집단간 차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4. 각 척도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각 척도들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3). BDI 점수와 상관은 역기능적 태도 총점이 $r=.34(p < .01)$, 하위 척도인 성취지향성 요인이 $r=.28(p < .01)$, 타인의존성 요인이 $r=.32(p < .01)$ 로 나타났다. 애착 척도의 각 하위 척도는 친밀성, 의존성 및 불안이 BDI점수와 각각 $r=-.17(p < .05)$, $r=-.36(p < .01)$, $r=.35(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긍정적인 대인관계 셰마 점수는

BDI와 $r=-.24(p < .01)$ 로서 우울증상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반응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애착관계와 부적응적 인지의 우울증상과의 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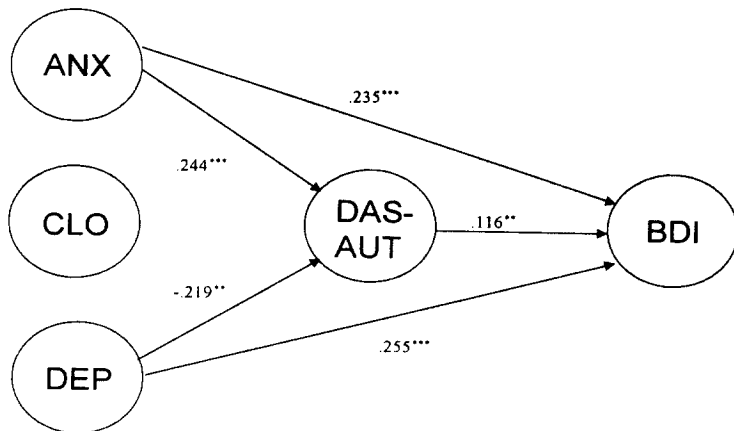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애착관계 형성의 질이 현재의 우울증상의 수준과 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이들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부적응적인 인지 요인인 역기능적인 태도와 대인관계 셰마를 가정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우울증상의 수준을 예측하는데 이들 두 변인들간의 상대적인 영향과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그림 1). 매개 요인으로서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은 역기능적 태도의 두 가지 하위 요인이었다. 애착관계 형성의 세 가지 요인 점수는 역기능적 태도의 하위 척도인 타인 의존성 정도를 8.4%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으나, $F(3,215)=6.542$, $p < .001$, 세 요인 중 불안 요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주었으며, 이들 4개의 요인들은 함께 우울증상의 수준을 25.1% 예측해 주었다, F

표 3. 각 척도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DAS	1.00	.						
2. AUT	.82**	1.00						
3. DEP	.79**	.39**	1.00					
4. Close	-.13	-.26**	-.01	1.00				
5. Dependence	-.19**	-.34**	-.03	.39**	1.00			
6. Anxious	.36**	.34**	.28**	-.25**	-.29**	1.00		
7. TAFF	-.11	-.15*	-.09	.16*	.33**	-.24**	1.00	
8. BDI	.34**	.28**	.32**	-.17*	-.36**	.35**	-.24**	1.00

BDI: 우울증상수준 DAS: 역기능태도 AUT: 역기능적 태도-성취지향성 DEP: 역기능적 태도-타인의존성
Close: 애착-친밀성 Dependence: 애착-의존가능성 Anxious: 애착-불안성 TAFF: 대인관계채마-친밀성총점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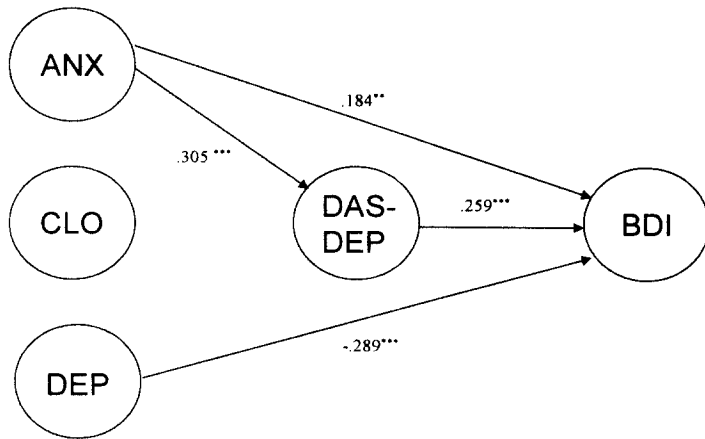


DAS-AUT: 역기능적 태도-성취지향성 DAS-DEP: 역기능적 태도-타인의존성
BDI: 우울증상수준 CLO: 애착-친밀성 DEP: 애착-의존가능성 ANX: 애착-불안성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애착관계 형성 및 성취지향성 요인의 우울증상간의 관계

(4,210)=17.630, $p < .001$. 애착관계형성의 불안요인은 타인의존성 요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과 함께 직접적인 영향이 모두 나타났다, 의존가능성 요인은 단지 직접적인 영향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태도의 성취지향성 요인을 매개요인으로 한 모델에서는 세 가지 애착관계 형성요인들이 매개요인을 18.8% 예측해 주었으며, $F(3,215)=16.592$, $p < .001$, 이들 요인들은 함께 우울증상의 수준

을 22.0%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4,210)=13.142$, $p < .001$. 애착관계의 불안요인과 의존가능성 요인은 모두 성취지향성 요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과 직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DAS-AUT: 역기능적 태도-성취지향성 DAS-DEP: 역기능적 태도-타인의존성
BDI: 우울증상수준 CLO: 애착-친밀성 DEP: 애착-의존가능성 ANX: 애착-불안성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애착관계 형성 및 타인 의존성 요인의 우울증상간의 관계

논 의

본 연구는 우울증상의 대인관계 측면을 성인이 애착관계 형성과 부적응적인 인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대인관계상의 부적응적인 양상 및 행동특성의 형성 기원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우울증상의 지속과 관련된 역기능적인 대인관계를 이해하여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는데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기 애착관계 형성과 우울증상간의 관계에서 역기능적인 태도의 두가지 하위척도 즉, 성취지향성 요인과 타인 의존성 요인이 각각 매개요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애착관계 하위 요인 중에서 불안 요인과 의존가능성 요인만 우울증상의 예측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착관계에 있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거나 사랑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성취지향성과 타인의존성과 같은 역기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Roberts, Gotlib과 Kassel(1996)

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애착관계 하위 요인 중 불안요인과 친밀성 요인이 역기능적 태도를 거쳐 이후의 우울증상 수준을 예측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의 차이점은 Roberts 등(1996)의 연구는 8주 후의 우울증상의 수준을 예측하는 연구였고 역기능적인 태도 점수를 하위척도로 나누지 않고 총점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태도가 두 가지 상이한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 타인 의존성 척도는 우울증상의 대인관계 특성 및 애착관계 형성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대와는 달리 두 하위 척도의 역할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우울증상의 수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애착관계 하위요인은 타인 의존성 요인과 함께 설명 변량이 25.1%로서 성취지향성 요인을 통한 설명량 22%보다 약간 높았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중요한 사람과의 대인관계 형성이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며, 대인관계상 하나의 결손이라고 볼 수 있는 애착관계의 불안정성은 자신의 적응과 관련된 부적응적인 인지를 형성하고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우울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되는 연구로서 Whisman과 Kwon (1995)의 연구에서도 지각된 애착 정도와 우울증상과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역기능적인 태도에 의해 매개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애착의 하위척도로 거부된 관계, 얽매인 관계 그리고 분노에 취약한 관계(rejected, enmeshed & anger-vulnerable)로 나누었을 때, 저절 경험의 지각 정도는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성취지향성 점수와 상관인 $r=.31$ 로 나타났고 분노에 취약한 정도와는 상관인 $r=.33$ 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애착관계 형성의 질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에 따라 두 변인들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애착관계 연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애착관계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인지적 모델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무의식적이므로(Bowlby, 1980) 자기 보고를 통해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인이 하나의 애착관계 형성 양식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른 양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논란이 많다(Lewis, 1994). 이외에도 애착 정도 혹은 애착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들이 매우 다양한데, 예로서 성인애착관계 질문지 (Inventory of Adult Attachment: INVAA : Lichtenstein & Cassidy, 1991), 개정된 애착관계 양식 척도 (Revised Attachment Style Scale : RAAS : Collins & Read, 1990), 애착관계 양식 척도(Attachment Style Measure : Hazan & Shaver, 1987) 등이 있으며 각각의 유형 구분이 달라 연구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예상과는 달리 대인관계 스키마와 관련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문화적인 관습 차이와 관련되어 각 문화에 대한 표준 점수 분포상의 차이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원문에 기초하여 번안을 하여 사용하였고 저자의 외국 규준에 의해 점수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채점 과정상 문제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대인관계 스키마 질문지에 대한 한국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결과는 애착관계 유형에 따른

집단 비교에 관한 것이다. 이는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유형 구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지각을 포함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울증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에 대한 연구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용한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몰입형과 두려움형이 우울 증상의 수준 및 그 외 부적응적인 인지와 대인관계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입형 집단은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해 안정형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인에 대한 역기능적인 의존도가 높아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에 예민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Beck(1983)의 우울증 하위 성격유형 중 사회성(sociotropy)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Carnelley 등(1994)의 대학생 집단 연구 결과에서는 비임상적 우울증은 회피형 집단과 관련이 있었고 반면에 임상적 우울증은 몰입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의 애착관계 유형들이 우울증상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셋째, 우울증상의 수준 및 임상적인 진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집단을 세 집단(비우울증상 집단, 임상적 진단 충족 우울집단, 임상적 진단 비충족 우울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의 애착관계 형성상 특성과 역기능적인 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BDI 점수가 16점 이상이면서 주요 우울증 장애 진단기준을 충족시키지는 않는 우울증상집단은 주요 우울증 장애 진단기준을 충족시키는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애착관계 형성의 질 및 역기능적인 인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Lewinsohn 등(1996)의 최근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즉, 비임상적 우울집단의 사람들은(우울증상의 수준은 중등도 이상으로 높지만, 진단적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임상적인 수준의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만큼 심리 사회적 기능상의 어려움을 보이며, 특히 만성적인 우울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을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자기 평가 척도에 근거하여 임상적 수준의 우울 증상을 평가했기 때문에 진단의 신뢰성에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이 임상적인 진단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역치 이하의 혹은 비임상적 수준의 우울 증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예: Sherbourne, Wells, Hays, Rogers, Burnam, & Judd, 1994). 따라서 이러한 비임상적 수준의 우울집단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우울증의 하위 집단으로 생각하며, 적응에 대한 만성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우울증의 대인관계 특성에 대한 연구로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인지적-대인관계적 접근에 기초하여 애착관계 형성의 질과 부적응적인 인지가 우울증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우울증의 대인관계 연구를 위한 하나의 이론적 틀로써 애착관계 이론의 효용성을 검토해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대인관계에 관한 인지적 표상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적 접근을 대인관계 맥락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다. 아울러 애착관계 형성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의 우울증상 및 인지적 특성을 파악해 봄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우울증에 관한 대인관계 이론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모든 조사 자료가 자기 보고에 의한 것이었고 한 시점에서 애착관계 형성 및 부적응적인 인지 그리고 우울증상의 수준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후 우울증상의 예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애착관계유형의 변화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는데(Davila, Burge, & Hammen, 1997), 개인의 애착 유형이 환경적이고 대인관계적인 경험에 의해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적응은 우울증상의 만성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성화 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애착관계의 특징적인 측면이 과연 우울증상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서로 다른 애착유형이 어떠한 상황적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부적응적인 기능을 초래하는지에 관한 연구들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울증

상의 만성화 정도, 애착유형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후 우울증상에 대한 예측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장기 추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1994). 한국판 역기능적 태도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요인구조, *심리과학*, 제 3권 1호, 100-111.
- 장휘숙(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제 10권 제 2호.
- Barnett, P.A. & Gotlib, I.H.(1988).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depression: Distinguishing among antecedents, concomitants and conseq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04, 97-126.
- Bartholomew, K. & Horowitz, L.M.(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four 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artholomew, K.(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7, 141-178.
- Bartholomew, K.(1994). Assess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adult attachment, *Psychological Inquiry*, 5, 23-27.
- Beck, A.T.(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 New perspectives. In. P.J. Clayton & J.E. Barrett(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NY : Raven Press.
- Blatt, S.J. & Zuroff, D.(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527-562.
- Blatt, S.J., Quinlan, D., Chevron, E., McDonald, C., & Zuroff, D.(1982).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 Psychological dimensions of depression.

-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113-124.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Y: Basic Books.
- Burns, D.D., Sayers, S.L., & Moras, K. (1994). Intimate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s there a causal conne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1033-1043.
- Carnelley, K.B., Pietromonaco, P.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Collins, N.L. & Read, S.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yne, J.C. (1976). Toward an integration description of depression. *Psychiatry*, 39, 28-40.
- Cummings, E.M., & Cicchetti, D. (1990). Toward a transactional model of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M.T. Greenberg, D. Cicchetti, & E.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gration* (pp. 339-372).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vila, J., Burge, D., & Hammen, C. (1997). Why does attachment style chang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3, 826-838.
- Downey, G. & Coyne, J.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 Gotlib, I.H. (1992). Interpersonal and cognitive aspects of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 149-154.
- Gotlib, I.H. & Lee, C.M. (1989). The social functioning of depressed patients : a longitudinal assessmen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 223-237.
- Gotlib, I.H. & Hammen, C.L.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Chichester: Wiley.
- Gotlib, I.H., Lewinsohn, P.M., & Seeley, J.R. (1996). Symptoms vs a diagnosis of depression: Differences in psychosocial functio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3, 90-100.
- Hammen, C.L. (1991). *Depression runs in families: the social context of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NY: Springer-Verlag.
- Hammen, C.L., Burge, D., Daley, S.E., Davila, J., Paley, B., & Rudolph, K. (1995). Interpersonal attachment cognitions and prediction of symptomatic response to interpersonal 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436-443.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Kiesler, D.J. (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s. *Psychological Review*, 90, 185-214.
- Kirkpatrick, L.A. & Hazan, C. (1994). Attachment styles and close relationships : A four-year prospective study. *Personal Relationships*, 1, 123-142.
- Kobak, R.R. & Haze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Lewis, M. (1994). Does attachment imply a relationship or multipl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 47-51.
- Milkulincer, M., Florian, V., Weller, A. (1993). Attachment styles, coping strategies and post-traumatic psychological distress: The impact of the Gulf War in Isra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817-826.
- Roberts, J.E., Gotlib, I.H., Kassel, J.D. (1996). Adult at-

- 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10-320.
- Safran, J.D. (1990). Towards a refinement of cognitive therapy in light of interpersonal theory: II Practi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107-121.
- Safran, J.D., Hill, C., Ford, C. (1990). Interpersonal Schema Questionnaire.
- Scharfe, E., & Bartholomew, K. (1994).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adult attachment patterns, *Personal Relationships*, 1, 23-43.
- Sherbourne, C.D., Wells, K.B., Hays, R.D., Rogers, W., Burnam, A.B., & Judd, L.L. (1994). Subthreshold Depression and depressive disorder: Clinic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medical and mental health specialty outpati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1, 1777-1784.
- Siegal, S.J., & Alloy, L.B. (1990). Interpersonal perceptions and consequences of depressive-significant other relationships: A naturalistic study of college roomm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361-373.
- Weissman, A.V., & Beck, A.T. (197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Dysfunctional Attitude Scale : A preliminary investig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Toronto, Canada.
- West, M.L., Rose, M.S., & Sheldon, A. (1993). Anxious attachment as a determinant of adult psychopatholog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orders*, 181, 422-427.
- Whisman, A.M., & Kwon, P. (1992). Parental representation, cognitive distortion and mild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557-568.
- Whisman, M.A. & McGarvey, A.L. (1995). Attachment, depressive cognitions and dysphori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 633-650.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 Focused on Adult Attachment

Kim, Eun Jeong

Yonsei University

Kwon, Jung-Hye

Korea University

The cognitive-interpersonal perspective of depression focuses on the interpersonal dysfunction of the depressed and their underlying cognition.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d tested whether this relation was mediated by dysfunctional attitude and negative interpersonal schema. The 221 undergraduate students were survey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re anxious and the less dependable on attachment relationship, the more depressed, and the dysfunctional attitude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dition, the preoccupied group among 4 styles on attachment showed the highest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The results suggested that adult attachment and related maladaptive cognition should be involved in the studi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n depression.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theory on depression were discussed.